

지체의 말씀

불기 2563년 5월 / 통권 459호



대한불교조계종 **진해대광사**

壬午 眞生
眞生
眞生



證道歌(증도가)

무 상 무 공 무 불 공
無相無空無不空이니,

즉 시 여 래 진 실 상
卽是如來眞實上이라

모습도 없고 공도 없고 공 아님도 없으니
이것이 바로 여래의 참된 모습이다.

심 경 명 감 무 애
心鏡明鑑無碍하니

확 연 영 철 주 사 계
廓然瑩徹周沙界이로다.

마음 거울이 밝게 비추어 막힘이 없으니
드넓게 밝아서 온 세계에 두루하다.

목 차

시와 불교의 만남 · 2

생각의 터 · 4

님께서 오신 날 / 운성스님

불교상식 · 7

부처님의 생애

부처님의 말씀 · 11

알림마당 · 13

대광사 5월의 행사

고맙습니다

대광유치원 5월 행사계획

어린이법회 5월 활동

부처님 오신날 연등접수 안내



표지그림 / 원성스님

● 발행처 / 대광사

경남 창원시 진해구 진해대로 303(태백동)

Tel. 055) 545-9595

홈페이지 / ① 대광사

② www.daegwangsa.or.kr

● 발행인 · 편집장 / 서경스님

● 주 간 / 이숙경

● 편집 · 인쇄 / 디자인스프링



님께서 오신 날

운성스님 / 대광사 회주

삭발로 머리 다듬고
목욕으로 몸 맑히고
손톱 발톱도 자르고
차곡차곡 다려두었던
플 옷 곱게 차려입고

장복 제곡 맑게 씻는
임간수를 길어다
청정 감로다로 올려서
님께서 오신 날 새벽을
예불 드러 열으리라.

살뜰하게 마련한
 한가닥 침향
 무릎 꿇어 사루어
 하늘 가득 향운제 지어
 님께서 오신 거룩하신
 사월 초여드레 새벽을
 예불로 열으리라.

한잎 한잎 연잎을
 손끝이 멍이 들도록
 물들이고 주름잡어 만든
 꽃갈이 어여쁜 등
 달갈이 화안한 등
 여러 달을 애써 만든
 제 솜씨껏 만든
 다섯 빛깔 등을
 오시는 길에 달으리라.
 어둠 밝혀 달으리라.



이천 육백여 년 전
그 날같이 다시 오시길
중생들 곁으로 다시 오시길
오직 일심으로 빌어
길을 밝혀 등을 달으리라.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용서하고
함께하는 기쁨으로
행복을 만들어가는
깨알 같은 소망 담은
이름표를 걸어서,
님께 보여드리리라.

세상의 평화를 기도하리라.
남북의 화해를 기도하리라.
모든 이들 행복을 기도하리라.



부처님의 생애

4) 출가와 고행

① 출가의 결심

출가한 사문을 만나고 성으로 돌아온 태자의 소식을 전해들은 췌도다나왕은 불길한 예감에 사로잡혔다. 태자의 출가를 염려한 것이다. 과연 태자는 출가를 허락해 달라고 부왕에게 청했다. 부왕은 완강하게 거절했지만 태자의 출가 결심을 막을 수는 없었다.

어느 날 늦은 밤에 홀로 궁전을 거닐던 태자는 자신의 아들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굳은 표정으로 말했다.

“라훌라가 태어났구나, 속박을 낳았구나.”

태자의 지위를 버리고 흥분하게 출가하려던 자신에게 자식이 태어났다는 사실은 그야말로 결정적으로 출가를 막는 속박이요 방해물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아들의 출생은 오히려 태자의 출가를 재촉하는 계기가 되었다. 더 큰 애착이 생



겨나기 전에 오래전부터 해온 결심을 실행에 옮기기로 마음 먹은 것이다.

출가하기로 결심한 날, 태자는 잠에 빠져 있는 야소다라와 아들을 멀리서 바라본 뒤 시종이자 마부인 찬나(車羅)의 방으로 향하였다.

“일어나라, 찬나야. 깐타까에게 안장을 얹어라. 갈 곳이 있다.”

태자는 성을 넘어갔다. 그리고 찬나를 돌려보낸 뒤, 가지고 있던 칼로 머리와 수염을 자르고 지나가던 사냥꾼과 옷을 바꿔 입었다. 이제는 누가 봐도 완벽한 수행자의 모습이었다. 이와 같은 싯닷타 태자의 출가 이야기는 태자의 출가가 충동에 의한 것이 아니고 생사의 근본 고뇌와 번민을 해결하기 위한 결단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왕위도 버리고 아버지의 간곡한 만류, 그리고 아름다운 아내 야소다라와 아들 라훌라마저 뒤로 한 채 늙고 죽어가는 고통을 극복하려는 길로 나아간 이 때는, 싯닷타 태자의 29세 되던 해였다.

② 스승을 찾아서

싯닷타 태자 당시 인도의 주류 종교는 바라문교였다. 인도 사회 최상위 계급인 바라문들은 태초에 브라흐만이라는 신이 있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 창조해 냈다고 생각했다. 따라서 브라흐만은 우주를 창조한 인격신이고, 우주의 본질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브라흐만 신을 찬양하는 의식을 집전하고 제사를 올리며 최고의 권력을 부여받는 자격은 바라문 계급에게만 제한되어 있었다.

이러한 바라문 사상을 부정하며 나타난 혁신적인 종교 수행자들을 ‘부지런히 수행하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슈라마나, 즉 사문(沙門)이라고 한다. 그들은 바라문교의 성전인 베다의 권위를 부정하고 집을 떠나서 걸식 생활을 하며 수행하였다.



이들은 다시 새로운 도시 국가들의 왕족, 귀족, 부호의 정치적, 경제적 원조 아래 활동하고 있었다.

수행자가 된 싯닷타는 이러한 사상가들이 대거 몰려 있는 바이샬리로 향하였다. 그곳에서 그는 고행주의자였던 박가와를 만났고, 당대의 사상가이자 종교가인 ‘알라라갈라마’와 ‘웃다까 라마뻬타’를 찾아간 그들이 가장 궁극의 경지라고 이야기하는 높은 선정(禪定)의 단계를 체험하였다. 하지만 마음속에서 완전한 깨달음의 소식은 얻지 못했다. 선정에 들었을 때는 번민도 괴로움도 사라지지만 선정에서 나오면 여전히 욕심과 어리석음의 존재 그 자체로 돌아갔다. 싯닷타는 더 이상 배울 것이 없음을 느끼고 그들을 떠났다.

③ 6년간의 치열한 고행

이제 싯닷타는 당시 많은 수행자들이 걸어갔던 고행(苦行)을 시작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가야의 고행림(苦行林)으로 가서 실로 어느 누구도 흉내 내지 못할 정도의 치열한 고행을 했다. 천상(天上)에 태어나는 것이 목적이 아닌 궁극적 진리를 얻기 위해 육체를 압박했다.

나는 하루를 대추 한 알로도 보냈으며, 맵쌀 한 알을 먹고도 지냈으며, 하루에 한 끼, 사흘에 한 끼, 이윅고 이레에 한끼를 먹고 보름에 한끼를 먹었다. 그래서 내 몸은 무척 수척해졌다. 내 볼기는 마치 낙타의 발갈았고, 내 갈비뼈는 마치 오래 묵은 집의 무너진 서까래 같았다. 내 뱃가죽은 등뼈에 들러붙었기 때문에 일어서려고 하면 머리를 쳐박고 넘어졌다. 살갗은 오이가 말라비틀어진 것 같고, 손바닥으로 몸을 만지면 몸의 털이 뽑혀 나갔다. 이를 보고 사람들은 말했다. “아, 싯닷타는 이미 목숨을 마쳤구나. 이제 곧 죽을 것이다”라고.

『불소행찬(佛所行讚)』



싯달타의 고행은 6년이나 이어졌다. 그의 길고도 혹독한 고행은 그를 죽음 직전의 상태로까지 몰아갔다. 당시 출가 사문이나 종교인들 모두는 고행을 함으로써 욕망을 억제하고 정신세계의 향상을 가져올수 있다고 믿었다. 그리고 고행을 한 사람은 신비하고도 초인간적인 힘을 가지게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수행자라면 누구나 고행을 했고, 사람들은 치열하게 고행하는 수행자들을 존경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싯달타는 고행에 대해 깊은 회의를 품게 된다. 고행은 육체를 극단적으로 확대하기만 할 뿐이었다. 극도로 피폐해진 육체는 정신의 피폐를 가져왔고 그 상태에서 맞게 되는 궁극의 경지는 결코 진실하고 진정한 열반(涅槃)이라고 할수 없었다.

싯달타는 고행을 포기했다. 그것이 깨달음에 도움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당시의 풍조에서 고행의 포기는 ‘타락한 사문’이라는 비난을 감수해야 하는 중요한 결단이었다.



부처님의 말씀



첫 번째 말씀(숫타니파타)

제2품 작은 법문의 품

1. 보배의 경

10. 통찰을 성취함과 동시에, 존재의 무리가 실체라는 견해, 매사의 의심, 계행과 맹세에 대한 집착의 어떠한 것이라도, 그 세 가지의 상태는 즉시 소멸되고, 네 가지의 악한 운명을 벗어나고, 또한 여섯 가지 큰 죄악을 저지르지 않습니다. 참모임 안에야말로 이 훌륭한 보배가 있으니, 이러한 진실로 인해서 모두 행복하여지이다.
11. 신체와 언어와 정신으로 사소한 잘못을 저질렀어도, 그것을 감추지 못하니, 궁극적인 길을 본 사람은 그것을 감출 수 없습니다. 참모임 안에야말로 이 훌륭한 보배가 있으니, 이러한 진실로 인해 행복하여지이다.
12. 여름날의 첫더위가 오면, 숲의 총림이 가지 끝마다 꽃을 피어 내듯, 이와 같이 열반에 이르는 위없는 묘법을 가르치셨습니다. 깨달은 님에게야말로 이 훌륭한 보배가 있으니, 이러한 진실로 인해서 모두 행복하여지이다.



13. 위없는 것을 알고, 위없는 것을 주고, 위없는 것을 가져오는 위없는 님께서 최상의 위없는 가르침을 설하셨습니다. 깨달은 님에게야말로 이 훌륭한 보배가 있으니, 이러한 진실로 인해서 모두 행복하여지이다.
14. 그에게 과거는 소멸하고 새로운 태어남은 없으니, 마음은 미래의 생존에 집착하지 않고, 번뇌의 종자를 파괴하고 그 성장을 원치 않으니, 현자들은 등불처럼 꺼져서 열반에 드시나니, 참모임에게야말로 이 훌륭한 보배가 있으니, 이러한 진실로 인해서 모두 행복하여지이다.
15. 신들과 인간들에게 섬김을 받는 이렇게 오신 님, 부처님께 예경하오니, 여기에 모인 존재들이여, 땅에 있는 존재이건 공중에 있는 존재이건, 모두 행복하여지이다.
16. 신들과 인간들에게 섬김을 받는 이렇게 오신 님, 부처님께 예경하오니, 여기에 모인 존재들이여, 땅에 있는 존재이건 공중에 있는 존재이건, 모두 행복하여지이다.
17. 신들과 인간들에게 섬김을 받는 이렇게 오신 님, 부처님께 예경하오니, 여기에 모인 존재들이여, 땅에 있는 존재이건 공중에 있는 존재이건, 모두 행복하여지이다.



◎ 대광사 5월 법회 및 행사 ◎

- ◆ 5월 4일 봉축행사
(중원로터리 오후2시~저녁 9시) 먹거리 장터및 제등행렬
 - ◆ 5월 5일 음력 4월 초하루기도 입재
 - ◆ 5월 7일 초하루기도 회향
 - ◆ 5월 5일~11일 보원행원품 특별기도 (사시예불. 주지스님 집전)
 - ◆ 5월 12일 부처님 오신날 (오전 9시~)
 - ◆ 5월 19일 음력 4월 보름법회
 - ◆ 5월 25일 제21회 청소년과 함께하는 산사음악회
(저녁7시 대광사 작은 프락)
 - ◆ 5월28일 관음재일 다라니기도 (저녁예불부터~)
- ※ 문의 및 접수 : 대광사 종무소 ☎055-545-9595

봄여행 관광주간 만원의 행복

- 기간 : 4월 27일 ~ 5월 8일
- 금액 : 1만원(누구나)
- 신청 : 템플스테이 홈페이지
- 문의 및 접수 : 종무소 ☎ 545-9595



고맙습니다

대광 후원회

(3. 19.~4. 20)

정진이 20,000	공상섭 30,000	금강지 10,000	김병문 30,000
홍승운 20,000	원광현의원 100,000	이금재 30,000	찬불단 50,000
정연수 30,000	이경화 10,000	이봉숙 10,000	이연숙 100,000
황두관 10,000	박미애 10,000	허점자 10,000	오현무 30,000
(주)카텍 300,000	정대식 20,000	원지심 20,000	김성욱 30,000
강란 10,000	대광사 100,000	유미란 50,000	
오미라 30,000	김지현 100,000	서경스님 50,000	
이태규 10,000	이미정 50,000	홍예현 50,000	

◆ 급식소 후원 계좌 : 수협 921-61-001338 대광사 ◆

※ 후원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제21회 대광사 청소년과 함께하는 산사음악회

- 일시: 5월 25일 세 번째 토요일 오후 7~9시까지
- 장소: 대광사 작은 뜨락
- 문의: 종무소 ☎ 545-9595

※ 대광사 산사음악회와 동참하실분은 종무소로 연락바랍니다.



5월 대광유치원 행사계획

1. 어린이날 행사 - 동극관람

○ 일시 : 5월 3일(금)

2. 봉축 대광유치원 가족 문화마당

○ 일시 : 5월 11일(토) 오전 10시 ~12시

○ 장소 : 대광유치원 운동장

○ 대상 : 대광유치원 원아와 가족

○ 내용 : 불교문화체험활동, 문화체험놀이 등

5월 어린이법회 활동

1. 성지순례 법회

○ 일시 : 5월 25일(토)

○ 내용 : 양산 통도사, 통도환타지아



부처님 오신날 연등접수 합니다

- 대웅전 10만원 / 설법전 7만원(가족등입니다)
 - 영가등 / 영가(부부는 1영가등으로 합니다) 5만원
- 문의 및 접수 : 종무소 ☎ 545-9595

대인불교조계종 **진해대광사**



온라인 입금 안내

경남은행 : 518-07-0096440	예금주 - 대광사
수협 : 921-61-000421	예금주 - 대광사
농협 : 821145-51-042833	예금주 - 대광사
국민은행 : 654301-04-231813	예금주 - 대광사